<Van der waals gas란? '*Reif 5.8절>

Van der waals 기체 1몰의 상태방정식은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eft(p + \frac{a}{v^2}\right)(v - b) = RT$$

여기서 v는 몰당 부피(부피/몰수)를 말한다. 이것을 van der waals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van der waals 방정식을 쓰면 보다 실제적인 기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과 다른 점은 a,b 두 상수가 방정식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체 분자는 분자간에 long-range attractive force가 있어서 넓은 범위 안에서 서로서로 붙어있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마치 압력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데, 그게 방정식 안에서 a가 하는 일이다. 한편, 실제 기체 분자는 short-range repulsive force도 생각해주어야 한다. short-range replusive force는 서로 다른 기체 분자가 같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따라서 기체 분자 각각이 고유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 상태방정식을 기술할 때는 분자들의 부피를 빼주어야 한다. 그역할을 바로 b가 한다.

a=b=0인 경우, 혹은 분자 1개의 부피가 아주 작아서 몰당 부피가 아주 클 때 $(v \to \infty)$, van der waals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근사시킬 수 있다.

$$pv = RT$$

즉, 위와 같은 상황은 이상기체에 대한 기본가정을 설명한다.

Van der waals 기체의 몰당 에너지가 부피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까? 몰당 에너지를 u, 몰당 엔트로피를 s라고 하면 열역학 1법칙에서,

$$du = Tds - pdv$$

$$\frac{\partial u}{\partial v}\Big|_{T} = T \frac{\partial s}{\partial v}\Big|_{T} - p$$

$$\begin{cases} du = Tds - pdv \\ df = -sdT - pdv \end{cases} \rightarrow \partial_{T}(-p)|_{v} = \partial_{v}(-s)|_{T}$$

$$\frac{\partial u}{\partial v}\Big|_{T} = T \frac{\partial p}{\partial T}\Big|_{v} - p$$

Van der waals 방정식을 p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p = \frac{RT}{v - b} - \frac{a}{v^2} \longrightarrow \frac{\partial p}{\partial T} \Big|_v = \frac{R}{v - b}$$

따라서,

$$\left(\frac{\partial u}{\partial v}\right)_T = T \left(\frac{\partial p}{\partial T}\right)_v - p = \frac{RT}{v - b} - p = \frac{a}{v^2}$$

이상기체는 a가 0이되어 에너지의 부피 의존성이 없다. $(U=3/2k_BT)$ 몰당 에너지 u를 다시 T 와 v 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보자.

$$du(T, v) = \frac{\partial u}{\partial T} \Big|_{v} dT + \frac{\partial u}{\partial v} \Big|_{T} dv$$
$$= c_{v}(T)dT + \frac{a}{v^{2}}dv$$

이제 어떤 실제적인 기체가 초기에 온도 T_0 와 몰당 부피 v_0 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이 기체가 온도 T와 몰당 부피 v를 가질 때 에너지를 u(T,v) 라고 하면,

$$u(T,v) - u(T_0, v_0) = \int_{T_0}^T c_v(T')dT' + \int_{v_0}^v \frac{a}{v^2}dv$$
$$= \int_{T_0}^T c_v(T')dT' - a\left(\frac{1}{v} - \frac{1}{v_0}\right)$$
therefore,
$$u(T,v) = \int_{T_0}^T c_v(T')dT' - \frac{a}{v} + const.$$

 c_v 가 상수라면,

$$u(T,v) = c_v T - \frac{a}{v} + const.$$

즉, 교과서 72쪽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물리적으로는 기체가 팽창된 후에는 기체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팽창되기 전보다 더 멀어지므로, 분자 사이의 퍼텐셜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v가 커질수록, u는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몰당 엔트로피 s를 계산해보자.

$$ds(T,V) = \frac{\partial s}{\partial T} \Big|_{v} dT + \frac{\partial s}{\partial v} \Big|_{T} dv$$

 $c_v(T) = T\partial s/\partial T|_v, \quad \partial_T(-p)|_v = \partial_v(-s)|_T$ 이므로,

$$ds(T,V) = \frac{c_v(T)}{T}dT + \frac{\partial p}{\partial T}\Big)_v dv$$
$$= \frac{c_v(T)}{T}dT + \frac{R}{v-b}dv$$

양변 적분하면,

$$s(T, v) - s(T_0, v_0) = \int_{T_0}^{T} \frac{c_v(T')dT'}{T'} + \int_{v_0}^{v} \frac{R}{v - b} dv$$
$$= \int_{T_0}^{T} \frac{c_v(T')dT'}{T'} + R \ln\left(\frac{v - b}{v_0 - b}\right)$$

 c_v 가 상수라면,

$$s(T, v) = c_v \ln T + R \ln (v - b) + const.$$